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 관련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구와 중구의 중심을 흐르는 대전천의 생태하천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생태하천복원 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에 친수공간 등을 최대한 설치하고,

하천과 주변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대전의 문화와 관광의 명소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대전의 뿌리로서 대전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나 90년대 이후 둔산, 유성 등 신도시 개발로 침체의 길을 걸어 왔으며,

그 동안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구민들의 불만은 말할 수 없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3대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동구 의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다만,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시계획)을 살펴보면, 본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전천 주변경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대전의 명소로 탈바꿈시킴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수부지 친수공간과 호안벽을 화강석·대리석·자연석 등 고급석재 등을 사용하는 등 더욱 더 품격있게 복원되어야 할 것이며,

동구와 중구 양측으로 제방을 이용한 천변도로(2차선이상 보·차도)와 조경시설의 대폭 확충과 볼거리를 위한 각종 조형물(교량, 야경분수대, 조명시설, 정자, 쉼터, 여울 등)을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최대한 많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대전천을 수시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휴식·체육 등을 위한 친수공간을 당초계획보다 대폭 늘려서 추진하는 등 서울의 청계천 복원방식을 도입하여 복원함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청계천 사업보다도 더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복원 차원을 넘어 대전시민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여, 중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시한 내용을 꼭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 9. .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 대전광역시장